과천 놀래킨 '박삐용 호랑이'

metro

메트로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크레용팝 의상표절 논란

대기업 인사태풍 분다

KT·포스코 회장 교체 이어 내년 상반기 25개 그룹사 CEO 61명 임기만료

최근 이석채 KT 전 회장과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이 잇따라 자진 사퇴하고 내년 상반기 국내 50대 그룹 상장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전문경영인 중 61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계 주요 기업의 인사 태풍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4일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의 국내 50대 그룹 내 상장사 전문경영인의 2014년 상반기 임기 완료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동부 7명, 포스코 6명, KT 3명 등 25개 그룹사 61명의 최고경영자(CEO)가 내년 상반기 임기 완료된다.

KT와 포스코는 사령탑이 교체되면 자연스레 경영진의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포스코는 민영화 이후 외부 인사 출신 회장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경영진의 대규모 인사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CEO 교체에 따른 어느 정도의 경영진 인사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T는 KTcs 임덕래 사장, 나스미디어 정기호 사장, KT서브마린 이재룡 사장 등이 같은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포스코는 박기홍·김준식 사장을 비롯해 포스코강판 신정석 사장, 포스코엠텍 윤용철 사장, 포스코켐텍 김진일 사장, 포스코ICT 조봉래 사장 등이 내년 3월 재임 기간이 공식 마감돼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부그룹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동부하이텍과 동부메탈 등 주요 계열사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매각이 확정된 동부하이텍 오명 회장과 최창식 부회장, 사장 등 3명이 내년 3월을 끝으로 공식 임기가 완료되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달 임기가 끝나는 동부건설 이순병 부회장, 동부CNI 곽제동·이창 대표이사, 내년 5월 임기가 끝나는 동부증권 고원종 사장도 내년 초 연임 여부 등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음달 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그룹의 인사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미 올해 9월 이후 제일모직 패션사업의 삼성에버랜드 이관, 삼성SDS와 삼성SNS의 합병, 삼성코닝 지분 정리 등 많은 변화를 거치며 3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맞물려 삼성그룹의 인사에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삼성SDI 박상진 사장,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 삼성물산 김신 사장 등의 공식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이며, 삼성생명 박근희 부회장도 내년 6월까지가 임기 시한이어서 이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롯데, LG, 한화, OCI, KCC, LS그룹 등에도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과 총수 공백 등의 이유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어느 때보다 대대적인 인사 태풍이 예상된다"면서 "다만 이들의 연사가 어떻게 전환될지 여부는 그룹 내에서 독점 의미를 담아 경쟁하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이국명기자 [illegible]

미세먼지 씻는 가을비 … 흰눈 없을 트리도 세수

마지막 가을비가 내리는 24일 서울 중구 광장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기상청은 25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는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번 비로 서울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도 씻겨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관동대학살 '쇠갈퀴 만행' 충격

23만 피살자 명부 분석
174명 유공가 추가될듯

일본의 관동(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혹성이 일본 전세시 피살자 명부를 통해 속속 드러났다.

명부에는 징용자의 귀환과 미귀환 여부가 표기돼 있고 쇠갈퀴로 개잡듯이 학살, 죽창으로 복부를 찔렀음, 곡괭이로 학살' 등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24일 국가기록원 등에 따르면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발견된 23만명의 명부 67권을 분석한 결과 174명이 순국자로 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실린 관동대지진 피살자 290명, 3·1운동 때 피살자 명부에 일부 포함된 52명 등 342명 중 실제 피살자는 198명이다. 다머지 144명은 3·1 운동 관계자나 독립운동 참가자 강제동원된 사람들 연도를 착각해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 김성민 박사는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면 유족은 최고 한 달에 174만8000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신혜기자

염수정 대주교 "정치는 사제의 일 아니다" 염수정(가운데)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대주교가 24일 명동대성당에서 신앙의 해 폐막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염 주교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 사제의 직접적인 정치 관여는 잘못된 일"이라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의 연평도 발언 등 지적했다. /연합뉴스

"연평도 앞 고해성사를"

천주교사제단 "한미 군사행동 탓 北 포격" 발언에 군·정치권 비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지난 22일 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 "한·미 군사행동이 연평도 포격 촉발"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강하게 비난하는 등 냉각 정국이 더 심화됐다.

국방부는 24일 "북한은 3년 전 우리 영해에서 실시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빌미로 삼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해 우리 장병 2명과 무고한 국민까지 희생시켰다"며 "북한의 도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북방한계선(NLL) 수호 의지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등도 이날 "거짓을 진실로 말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포격 발언은 국민 앞에 고해성사하고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대통령과 어닮이 이는 측면에서는 자조한 일"이라고 사제단의 입장을 거들었다. 다만 "신부들의 주장은 어떠 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확실한 선을 그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심각한 상황에서 사제단 미사라는 변수까지 등장해 이번주부터 본격 시작되는 여야의 입법 예산전쟁에도 가파른 전선이 구축되는 형국이다.

/정선혜기자 ...@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노벨 다이너마이트 발명 특허 취득

1867년 11월 25일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의 발명 특허를 획득한다. 노벨은 규조토에 액체 니트로글리세린을 흡수시켜 안전하면서도 폭발력이 강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고 막대한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재산을 스웨덴 왕립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하여 '노벨재단'이 설립되고 노벨상이 탄생했다.

공공기관 '청년 정규직' 2만7000개 신설

내년부터 3년간 공공기관에 만 15~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일제 정규직 일자리 2만7000개가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관장 부처로서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시행" 공문을 유관 부처와 대상 공공기관에 보냈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대상기관 401곳의 정원은 29만3707명이었고 여기에 채용 비율 3%를 적용하면 총 8851명의 신규 채용 규모가 산출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한 해 9000여 개를 늘려 3년간 2만7000개 안팎의 신규 일자리가 공공기관에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윤다혜기자

'빠삐용 호랑이'에 식겁한 과천

서울대공원서 탈출소동
사육사는 목 물려 중태

24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를 탈출하려던 호랑이 한 마리가 사육사를 물어 중태에 빠뜨리는 사고가 벌어졌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서울대공원의 수컷 시베리아호랑이(3·사진)가 사료를 놓던 사육사 심모(52)씨의 목을 물었다. 심씨는 인근 한림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사육사에게 부상을 입힌 호랑이는 이후 우리를 뛰쳐다와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대공원 측은 탈출한 호랑이를 우리로 다시 들어가게 유도해 탈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서울대공원에서는 2010년 12월에도 말레이곰 '꼬마'가 탈출했다가 9일 만에 포획된 바 있다.

/윤다혜기자

'저작권 만료' 자료 100만건 푼다

문학 속 한국 방언 등 공공 데이터 100만 건이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안전행정부와 협력 사업을 통해 국립국어원(표준 국어 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정보), 한국문화정보센터(전통 예술 정보) 등 공공 데이터 100만건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국립국어원의 경거은 우리말 남북한 언어사전, 국가별 한국 방언 문학 속 한국 방언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리말 정보 24만여 건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보,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공유 저작물 정보 등 산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저작권 정보 80만 건으로 이뤄졌다.

문체부는 "이번에 개방하는 공공데이터는 생활에 필요하고 산업적으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은 정보들"이라며 "민간 개발자들이 스마트폰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신혜기자

'학원 문제' 커닝한 수능

세계지리·수학영역 출제 오류 이어 영어 일부 문항 '베끼기' 논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오류 논란 속에 영어영역 일부 문항이 특정 교재와 거의 같게 출제됐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24일 학원가에 따르면 영어 B형 일부 문항이 사설학원 교재와 문제 유형이 같은 것은 물론 보기까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재 연계 문항이기 때문에 지문은 같을 수 있지만, 출제 방식까지 같다는 것은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기출문제인지, 시중 교재에 나온 문제인지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영어 B형 39번 문항은 EBS 교재에는 '빈칸 추론'이지만 수능에서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 찾기'로 변형됐는데 유형뿐 아니라 해당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제시된 보기 5개 중 4개가 대성학원 인터넷 동영상 강의 서비스인 '대성마이맥'의 한 영어강사가 만든 수업 자료와 일치했다.

수학영역은 A형 18번 문항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흰색 탁구공 8개와 주황색 탁구공 7개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 없이 나눠 주려고 할 때 학생들이 흰색과 주황색 탁구공을 각 1개 이상 갖는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다.

그러나 포털 게시판을 보면 문제에서 같은 색의 탁구공을 구별하는지가 명시되지 않아 수험생들이 혼란을 느꼈다는 글이 다수 게시됐다.

앞서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과 관련해선 이르면 다음주 중 집단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엄진용기자 mjum@metroseoul.co.kr

'모피 안 입는 그대가 에코 멋쟁이' 24일 오후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열린 '동물학대 않는 패션쇼 제2회 사랑을 입다'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이 모피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골골한' 서울대생…96% 비타민D 부족

서울대 학생들이 햇볕을 쬐는 시간이 부족해 20대 성인 평균보다 비타민 D 수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지난 4~5월 학부생과 대학원생 5239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학생 정기건강검진 결과 비타민 D 결핍 또는 부족한 학생 비율이 96.2%(남학생 95.7% 여학생 96.6%)였다.

결핍(혈중 농도 10ng/㎖ 미만)인 학생 비율도 남학생 39.5% 여학생 51.5%에 달했다.

조희경 보건진료소 교수는 "실내에서 공부하느라 해를 자주 보지 않은 학생이 많은 게 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다혜기자

어르신 복합문화센터 개소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센터가 기장군 가야동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노인 인구 60만 시대에 노인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기공식을 오는 25일 오전 11시 가야동 공사 현장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 예술회관은 부지 2372㎡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내년까지 총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건립될 예정이다.

예술회관에는 ▲문화시설(공연장, 문예강좌실, 전시실, 도서관 등) ▲체육시설(요가, 에어로빅, 포켓볼장, 탁구장, 헬스장 등)을 비롯해 상담실과 건강검진실, 물리치료실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선다.

이날 기공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버튼 터치 등을 할 예정이다.

도시건축 시민투어 30일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오는 30일 제22차 부산도시건축 시민투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투어는 2013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작 탐방'을 주제로 부산의 아름답고 우수한 건축물들을 둘러본다.

방문지로 ▲더박스(카페) ▲센텀119안전센터·소방서 ▲서구에 위치한 ▲라임유치원과 ▲강서브라이트센터(문화복지시설)를 둘러볼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며, 참가비는 1만5000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부산국제건축문화제 홈페이지(http://www.biacf.or.kr) 또는 부산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e메일(biacf@naver.com) 또는 팩스(051-744-7730)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051)744-7728

모바일 앱 예비창업자 모집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 창업지원실에 모바일 앱 분야 1인 창조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모바일 앱 관련 분야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예비 창업자 및 개발자 개인 또는 팀이다.

혜택으로는 개발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개발에 필요한 넥 윈도 PC 및 테스트 장비와 함께 고속 인터넷 전용 선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 부산 모바일 앱 개발센터에서 추진하는 콘텐츠 마케팅 및 IR컨설팅, 개발자금 지원 등 각종 사업 참여 시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입주 기간은 1년으로, 최종 선정된 개발자는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창업지원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bmac.kr) 참조.

문의 051)749-9462

학교 CCTV 90% '있으나마나'

김선길 시의원 "차량번호 식별 어려운 낮은 해상도에 야간촬영 취약"… 2016년까지 100% 고화질 개선

부산지역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0대 중 9대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선길(운영위원회 위원장) 의원은 22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내 각급 학교의 CCTV 설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에 설치된 CCTV 중 50만 화소 미만이 84.7%, 100만 화소 미만이 89.6%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무용지물인 CCTV가 9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학교에 설치된 CCTV의 90% 정도가 자동차번호 식별이 곤란할 정도로 낮은 해상도를 갖고 있으며 특히 야간 촬영 기능은 더욱 취약해 학교폭력이나 성범죄 방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화질 CCTV 야간 촬영 가능 미비 CCTV 등에 대한 점진적 교체와 함께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전담요원의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위험지역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2016년까지 관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629곳의 전 학교의 CCTV를 고화질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총 7860대(교당 12.5대)의 CCTV가 설치돼 있고 우선 시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학교 내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체 CCTV 30% 정도를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200만 화소 권장)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60%, 2015년 90%, 2016년까지 100% 고화질로 개선할 계획이다. /뉴시스

순금으로 만든 추억의 영도다리 22일 부산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직원들이 영도대교 개통에 맞춰 경주으로 제공할 '추억의 영도다리 황금 모형'을 공개했다. 이 모형은 순금 112.7돈으로 제작된 시가 2000만원짜리다. 부산지역 롯데백화점 4개 점은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백화점 고객을 대상으로 권축 응모를 진행해 이 황금 모형을 제공한다. /뉴시스

지적공사 전북시대

전주·완주 혁신도시서 오늘부터 업무 시작

LX대한지적공사가 37년간의 서울 여의도 시대를 마감한다.

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본사 14개 전 부서와 노동조합이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해 이날 25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북 혁신도시 내 12개 이전 기관 가운데 공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지적공사가 처음이다.

공사는 사옥 이전 기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별로 이사 날짜를 나눠 이전해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다.

전주시 완산구 중동에 자리한 지적공사의 전주 신사옥은 연면적 1만3832㎡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지어졌다.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에너지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공사는 신입사원 채용 시 9%를 전북 출신 인재로 채용하는 '지역 인재채용 목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무보조, 구내식당, 청소, 경비 등의 인력도 지역에서 뽑을 예정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대한지적공사의 전주 신사옥 전경.

특히 공사는 지적과 국토 공간정보 산업에 전북의 문화·예술을 융합시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측은 이번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안정화와 전북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표 지적공사 사장은 "지적공사의 전북 혁신도시 이전은 천년고도이자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주에서 공간정보의 메카로 도약하는 제2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균기자

각국 정상 국빈만찬 메뉴 맛볼까

롯데호텔부산 중식당 도림 여경옥 세프 '특별 갈라디너'

롯데호텔부산(총지배인 김정환) 중식당 도림은 롯데호텔 중식당의 여경옥(사진) 세프와 함께 구성한 '특별 갈라디너'를 오는 11월 27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갈라디너는 중국 공식 국빈 만찬을 담당하는 북경 인민대회당의 짬방관 수석 세프와 함께 서울 용산에서 만찬 행사를 진행한 여경옥 세프가 특별히 부산에서 진행하는 중국 정상 만찬 나너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국 정상들의 국빈만찬 시에 제공됐던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이번 갈라디너에서는 특미 전채 요리, 부용 제비집, 홍소 상어 지느러미찜, 소자 동해삼, 김품 전복, 유림 활어찜, 서시 복음밥, 모듬과일이 제공된다. 또 각 코스마다 어울리는 와인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30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이다.

문의 및 예약 051)810-6340

신라대생 국제발명품전시회 금상

신라대는 이 대학 발명동아리 EPCP 소속 학생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제38회 이노바(INOVA) 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금상 등 주요 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한(자동차기계공학과 1년, 사진 왼쪽)씨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대학발명협회의 주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대표 발명품 4팀 중 1팀으로 참가해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

그의 출품작은 '전자기기 효율 비교기'로 평소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효율을 알 수 있고 각 전자제품들의 전기 소모량을 체크해 전기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장치다. 조윤혜(자동차기계공학과 4년, 오른쪽)씨는 이번 대회의 국제프레젠테이션 심사에 참가해 국내 참가 발명품 소개를 맡아 금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17일 오후 7시 크로아티아 수도 자그레브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혜균기자

입지·교육·교통 갖춘 아파트

화제의 분양

금사 삼한 사랑채

금사 삼한 사랑채 아파트 조감도(왼쪽)와 분양 수요자들의 방문으로 분주한 주택전시관 내부

수영강·윤산 품어…뉴타운 개발시 프리미엄 효과
소형 3개 타입 3.3㎡당 580만원부터…중도금 무이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주)삼한종합건설이 부산 금정구 금사동 산43의 4 일대에 264가구 규모의 '금사 삼한 사랑채' 아파트(조감도)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삼한건설은 지난 15일 부산진구 부전동 삼한골든뷰빌딩 3층에 주택전시관을 오픈했다.

그동안 분양이 뜸했던 금사동 일대에 중소형 아파트의 등장으로 오픈 날부터 분양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금사 삼한 사랑채는 전용면적 44㎡ 146세대, 49㎡ 15세대, 59㎡ 103세대 3개 타입의 소규모 면적대로 구성된 프리미엄 미니아파트다. 실수요에 적절한 주택형 설계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최근 고가의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분양가가 3.3㎡당 580만~665만원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알뜰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이 아파트는 도시철도 4호선과 가깝다. 수영강과 윤산을 앞뒤로 둔 배산임수형 입지를 강점으로 내세운다.

또 도보권 내에 초·중·고교 및 부산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대의 대학벨트 조성으로 인해 풍부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서·금사 뉴타운 개발 시 프리미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3순위 청약 마감 결과 최고 4.07대 1, 평균 약 2대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삼한건설 관계자는 "핵가족화된 주거 수요와 획일적인 오피스텔 평면 구성에서 벗어나 비슷한 가격에 상대적으로 넓은 평면의 아파트로 설계해 이 같은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오는 2015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51)544-3131

/정하균기자 jhk@metrobusan.co.kr

통상분쟁 해결 전문가로 키웁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국내 첫 양성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은 국내 처음으로 국제통상 분쟁해결전문가를 양성한다.

이 대학 국제통상 분쟁조정 양성사업단은 올해 'BK21플러스 사업 최종 선정결과 발표'에서 대형 사업단으로 선정돼 매년 6억원, 7년간 총 4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비롯해 총 45개국에 달하는 국가와 무역자유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국제통상 분쟁해결 관련 전문가는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이 대학의 분쟁 조정전문가 양성사업은 큰 의미를 가진다.

국제통상분쟁조정전공은 석사 20명에게 월 60만원 및 박사 10명에 월 100만원을 7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졸업생 전원에 대해 국내의 로펌, 대한상사중재원, 해외 유수의 국제통상 분쟁전공 대학원 등 연수, 해외 인턴십 및 취업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실무 경력자를 전공과 불문하고 선발할 예정이다.

이학춘 국제전문대학원장은 "대학에 원산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해외의 대학들과 컨소시엄을 형성해 한국 및 해외 기업을 위한 원산지 검증 자료 준비 등 미래 지향적인 FTA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김장 담그기 재밌어요" 지난 23일 기장군 철마면 두명리 꿈그린자연체험장에서 열린 제7회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페스티벌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김장을 담그고 있다. 이번 행사는 금정시니어클럽 주최로 다문화 가정에 건전한 문화 체험 기회 제공 및 친교의 장으로 마련됐다.

/정하균기자

지역 도시철도·버스 요금 ↑

부산지역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이 23일부터 인상된다.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교통카드 이용 기준으로 1080원에서 1200원으로 11.1%, 도시철도 요금은 1100원(1구간)에서 1200원으로 9.1% 각각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도시철도는 2년, 시내버스는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초 택시요금이 16.23% 인상된 데 이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요금까지 올라 서민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재정지원금 증가로 시 재정이 고갈된다는 이유를 들어 요금 인상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산복도로에 무료 영화극장

부산 동구 산복도로 지역에 연중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극장이 설립됐다.

부산 동구는 영화관람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 수정산 가족 체육공원 내 '수정극장'을 설립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정극장은 예산 3억원이 투입돼 전체면적 126㎡, 1층짜리 건물로 지어져 한 번에 40~50명까지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구는 1960~80년대 삼일극장, 수정극장, 대도극장, 조광극장 등 영화의 거리가 있던 동구의 기억 자산을 재조명하려고 무료 영화관을 지었다고 밝혔다.

수정극장에서는 매일 오후 3시 한 차례 추억의 영화와 부산지역에서 촬영된 작품을 위주로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

구는 이달 말까지를 시범 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영화 '건축학 개론', '가을로', '집으로', '오세암', '8월의 크리스마스', '님은 먼 곳에', '클래식'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하늘로 쏜 '센카쿠 갈등'

中 '방공식별 구역' 설치 선포·정보수집기 띄우자 日 전투기 발진

중국과 일본의 영토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일본 방위성은 전날 중국군 정보수집기 2대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북방 동중국해의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켰다고 밝혔다.

일본 영공 침범은 없었지만 중국 정보수집기 한 대가 센카쿠 영공 약 40㎞까지 접근했고, 또 다른 정보수집기는 센카쿠 북방 약 600㎞ 부근 동중국해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국 공군은 새 구역에서 첫 번째 순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형 정찰기 2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겠다고 선포, 열도를 뒤흔들었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관료들을 불러 즉각 대응책을 논의하고, 센카쿠 주변의 경계 및 감시 강화를 지시했다.

일본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가 이번에 설정한 구역이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이 안에는 양국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도 물론 포함된다.

그간 항공자위대는 일본이 설정해놓은 방공구역에 중국 항공기가 진입할 경우 일본 영공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전투기를 긴급 발진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도 방공구역을 설정, 앞으로 센카쿠 영공에서 양국 전투기가 만날 횟수가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예측 불허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초비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미국은 이미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미국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오는 29일(현지시간)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23일 뉴욕의 한 쇼핑몰로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11월 마지막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금요일로 소매 업체들은 4~5일 전부터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전미소매연맹(NRF)은 이번 연말 소비 매출이 지난해보다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AP 연합뉴스

이란 핵협상 10년만에 타결

이란과 서방 국가들의 핵 협상이 24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핵 프로그램과 관련, 합의를 이뤘다.

협상 당사국들은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이란 핵 프로그램을 규제하게 된다. 제재 조치가 완화되면 이란이 얻게 될 경제적 가치는 향후 6개월 간 61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동결됐던 해외 자산 42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고, 수출이 금지됐던 석유화학 제품 등 19억 달러어치를 해외에 내다팔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올해 중도 성향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란에서는 10년간 교착상태였던 서구권과 핵 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조선미기자

만원버스 못탄 女 '막장 복수극'

metro HongKong

뒷문 매달린채 남편 불러 '승용차 바리케이트' 저지

南京蠻婦 Call夫攔巴

"내가 차에 타지 못하면 아무도 갈 수 없다."

최근 중국 장쑤성에서 한 여성이 혼잡한 출근길에 버스를 타지 못할 것 같자 이미 탄 승객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교통을 마비시키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만원 버스에 비집고 오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도저히 공간이 없어 탈 수 없었다. 그러자 그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 뒷문을 잡고 놓지 않았다.

많은 승객들은 "정말로 자리가 없다. 능력이 있으면 타라"고 말했다. 한 남성 승객이 "모두 출근 중이고 빨리 안 가면 시작한다. 나는 사람들의 시간을 뺏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난 여성은 이 남성과 말싸움을 하며 뒷문을 손으로 잡고 한 발은 차 위에 올려놓은 채 계속 버텼다. 이 여성은 전화로 남편까지 불렀다. 약 10분 뒤 승용차를 타고 온 남편은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이에 그 앞을 가로막았다.

승용차가 20분이나 막아서고 있자 승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차를 타기 위해 하차하기 시작했다. 교통을 마비시킨 부부는 그제야 분이 풀린 듯 승용차를 타고 사라졌다. /홍콩=김소 기자

한방칼럼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현기증, 목 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구안와사,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마비, 부정맥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방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혼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떡지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섬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기 빡빡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액응고 장애, 임산부 등은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앉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치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정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청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내시하고 남은 찌꺼기를 원활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청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 받을 수도 있다.

한의학박사 허정구 원장

'항공기내 휴대폰 통화' 하지마!

美 허용추진에 승객들 "반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과 관련, 업계 반발이 거세다고 2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FCC는 항공기가 지상 1만 피트(3048m) 이상에서 비행할 때 승객들이 휴대전화와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공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경우 다른 승객의 휴식에 방해가 되고 안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톰 휠러 FCC 위원장은 "규정 개정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면서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에 대한 최종 결정은 연방항공청(FAA)과 각 항공사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 승객들이 항공기 내 전화 통화를 금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7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휴대전화 통화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조선미기자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젖혀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원인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4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이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하나,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제법 있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담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market index <22일>

코스피	코스닥
2006.23 (+12.45)	504.06 (+3.01)
금리	환율
2.95 (-0.03)	1061.00 (-0.05)

뉴스 & 뉴스

중기 경기전망 2개월째 하락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월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가 전월보다 3.2포인트 줄어든 88.7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공업이 86.3, 중화학공업은 90.9로 전월보다 각각 4.3포인트, 2.2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규모별로 소기업은 85.7, 중기업은 96.8로 각각 4.0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절적 비수기가 도래해 경기 불안심리가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로또복권 제575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2	4	20	34	35	43	1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45,691,760
2등	5개 숫자+2등 보너스 숫자	43,655,114
3등	5개 숫자 일치	1,352,219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20-1551

발행·인쇄인	남근호
사장 편집인	김송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식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11 3
부산광고문의	051)503-2100
독자센터	02)721-9817

2003년 5월 7일 정기간행물등록 서울특별시 가00185

KT "CEO 인사 낙하산 없다"

절차 투명성 위해 추천·공모 등 다방면 후보자 모색

KT가 신임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24일 KT 이사회에 따르면 이석채 전 회장의 후임 CEO를 추천하기 위한 'CEO 추천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당초 신임 CEO 선임을 이사회 단독 추천으로 진행할지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고민했으나 최근 낙하산 인사 논란, 비리 백화점 등 목소리가 나오며 논란이 일자 절차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CEO 추천위원회는 자체 후보자 추천뿐 아니라 공모 접수, 헤드헌터업체 등 외부 추천 등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다방면의 모색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모집한 다수의 후보자들 중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자 1인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렇게 CEO 추천위를 통해 결정된 최종 후보자 1인은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주주총회 2주 전 소집 공고 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초께 임시주주총회에서 KT의 새 수장이 선임될 공산이 커 보인다.

KT는 5년 전 남중수 전 사장에 이어 이번 이 전 회장까지 각종 비리 행위와 낙하산 인사라는 불명예를 연고 CEO 자리에서 내려왔다. 이 때문에 KT CEO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자 새 CEO 후보는 돈보다 명예를 안고 투명 경영을 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신업계 고위 관계자는 "KT가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선 통신 시장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사람이 새 CEO 자리에 앉아야 한다"면서 "고액의 연봉도 대폭 삭감하고, 투명 경영을 앞세워 돈보다 명예를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다양하다. KT 출신으로 표현명 회장 직무대리를 비롯, 최두환 전 KT 사장, 정치권 출신으로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형태근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거론된다. 삼성전자 출신으론 홍원표 사장,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이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다양한 후보군 속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 특별히 앞서는 후보가 없어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라는 분위기다.

한편 KT는 새 CEO 선정에 있어서 ▲경영 경제에 관한 지식 ▲경영 경험 ▲기타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물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20년만에 생긴 새 아파트 분양 '구름인파' 포스코건설이 22일 연 부산 더샵 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 기다리며 부산에서 20년 만에 분양한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보여 사흘간 3만4000여명이 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건설 제공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부터 국민주택채권 횡령까지

국민은행 3개 특검 동시에

국민은행의 부실·비리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도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쿄지점 비자금 의혹으로 시작된 금융 당국의 특별 검사는 국민은행이 투자한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베이징지점 인사 파문, 보증부대출 이자 부당 수취, 본점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까지 확대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은행에서 불거진 인사 파문과 부실·비리 점검 의혹과 관련해 내부 통제 미흡으로 실무진에서 경영진까지 제대로 보고가 안 된 총체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25일부터 국민은행에 검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보증부대출 부당 이자 수취 건과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고를 특별 검사한다. 지난 21일 국민은행 자체 조사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국민주택채권 90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 본점 신탁기금본부 직원들이 국민주택채권을 포함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직원의 제보로 본부 자원의 자체 조사 결과, 국민주택채권의 위조·변사 사실을 밝혔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국민주택채권을 직원이 위조한 뒤 친분 관계가 있는 직원을 이용해 지급 제시하는 수법을 썼다"고 전했다.

/이유미기자 miss@

"예비부부 역세권 소형(1억원대) 사라"

수도권 외곽 2억이하 주택 수두룩…발품 팔아야
신축 빌라 경쟁력 있어…집값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금융가 사람들

■KB 임채우 부동산전문위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예비 신랑·신부. 하지만 전세난이니 월세난민이니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실감 나지 않던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는 과정에서 인생 최대의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이다. 적지 않은 전세금은 어떻게 마련했다 치더라도, 어떻게 비싼 값에 전세를 구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사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임채우(사진)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지난 19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수도권 외곽지역에는 찾아보면 아직도 2억원 이하의 주택들이 많다"며 "교통 좋은 1억원대 소형 주택을 사서 시작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121만원에 달한다. 서울이 2억8201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경기와 인천지역도 각각 1억6801만원, 1억1407만원이다. 2억원 이하 주택을 눈여겨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채우 전문위원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위협하는데도 사람들이 전세로만 몰리는 이유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최근 5년간 집값은 충분히 빠진 상태"라며 "부동산정책이나 경제심리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내려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에 대해 더 내리지는 않아도 오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그는 "투자 관점이 아닌 거주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전세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스트레스, 2년마다 이사 다니는 데 따른 불편함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집을 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가 3~4인에서 1~2인 가구로 빠르게 변하면서 소형 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실제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빌라도 아파트에 비해 70~80%가량 가격이 저렴한 데다 수요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새 건물 위주로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많이 다니고 많이 봐야 좋은 부동산을 고를 수 있는 혜안이 생긴다"며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주말에 데이트로 모델하우스나 부동산을 둘러보며 미리 발품을 팔아둔다면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원하는 적정 가격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70인치 티비가 270만원대! 24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에서 열린 반값대형TV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11번가의 TG삼보가 ... 270만원대 '70인치 스마트TV'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진격의 삼성

올 반도체 시장 2위 수성
인텔과 격차 4.3%P 전망

삼성전자가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1위 인텔을 바짝 추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하며 인텔과의 격차를 좁혔다.

24일 시장조사기관인 IHS 아이서플라이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334억56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점유율은 10.9%로 지난해(10.3%)보다 높아지면서 세계 2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매출액이 312억64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300억 달러를 넘고 점유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다.

반면 1위인 미국 인텔은 올해 반도체 매출액이 469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474억2000만 달러)보다 1.0% 줄고,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15.7%에서 14.8%로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인텔과의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5.4%포인트에서 올해 4.3%포인트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상훈기자 [illegible]

"졸전작품 온라인서 볼 수 있어요"

홍대·광운대 등 4개 대학 영상콘텐츠 채널 마련

졸업전시회에 가지 않아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네이버는 TV캐스트 내에 한성대, 홍익대, 광운대, 상명대 등 4개 대학교 영상 콘텐츠 관련 학과 채널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졸업전시회 작품을 온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들은 졸업전시회를 방문하지 않아도 해당 학과 졸업전시회 개최 시작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졸업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다 널리 알리며 이용자들의 반응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들은 23일부터 졸업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홍익대 애니메이션전공 학생들의 졸업전시회(http://tvcast.naver.com/hisnidmd)와 지난 20일 개최된 한성대 애니메이션과 졸업전시회(http://tvcast.naver.com/hsani2013)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명대, 광운대 등 다른 대학교 졸업전시회도 전시회 시작 시점에 맞춰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박성훈기자

LG유플러스 프리미엄 채널 신규요금제 출시

LG유플러스는 영화, 미국 드라마 등 해외 인기 프로그램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춰 기존에 제공하던 채널에 국내외 영화·드라마·아웃도어 등 특화 채널 및 유료 채널을 보다 낮은 가격에 추가 제공하는 프리미엄 IPTV 요금제인 'U+tv G 14'와 'U+tv G 25' 2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U+tv G 14는 기본료 1만4000원에 기존 요금제(월 7900원)의 126개 채널을 포함해 ▲영화·미드 '폭스(Fox)' '스크린(Screen)' ▲스포츠·레저 '아웃도어 채널(Out door Channel)' '엣지 TV(Edge TV)' ▲해외 뉴스보도 'BBC 월드뉴스(BBC Worldnews)' 'CCTV' ▲취미 'K바둑(K BADUK)' 등 시청률 50위권 이내 프리미엄 인기 채널 23개를 추가, 총 149개 채널을 제공한다.

U+tv G 25 요금제는 월 2만4900원으로 U+tv G 14가 제공하는 149개 채널에 영화 채널 '캐치온(Catch On)', 성인 채널 '비키(VIKi)' 등 4개 유료 채널을 추가로 제공해 총 153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4개 유료 채널을 개별 이용할 경우 2만1800원의 이용 요금이 발생하는 반면, U+tv G 25 이용 고객은 유료 채널 개별 이용시보다 50% 저렴한 1만900원으로 유료 채널을 이용하는 셈이다.

LG유플러스는 신규 요금제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말까지 U+tv G 14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된 가격인 월 9900원에 해당 요금제를 2개월간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LG유플러스 IPTV 사업담당 최순종 상무는 "보다 많은 채널과 콘텐츠를 소비하기 원하는 고객을 위해 프리미엄 요금제를 새롭게 선보였다"면서 "앞으로 유료 방송 시장에서 콘텐츠 리더십을 더욱 확고히 함과 동시에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 출시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IPTV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영명기자 [illegible]

실버암보험 80세도 첫가입 OK!

라이나 무배당 상품 눈길

라이나생명보험이 고령자 대상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의 가입 연령을 80세로 확대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80세까지의 고령자들이 가입 가능하도록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이다.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특히 이 상품은 특약 가입을 통해 특정 암(위암, 대장암, 폐암) 또는 고액 암(백혈병, 뇌암, 골수암)에 대해서 추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면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약을 함께 개발했다. 무배당 실버암사망특약(갱신형) 가입을 통해 보험 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갑상선암은 갑상선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문의 080)951-8585

우편번호 다섯자리 된다

2015년 8월부터 우편번호 자릿수가 현행 6자리에서 5자리로 줄어든다. 우정사업본부는 도로·하천·철도 등을 기준으로 새로 설정한 국가기초구역 번호를 새 우편번호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새 우편번호의 처음 두 자리는 시·도, 셋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로 구별하고 마지막 두 자리는 연번(일련번호)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투스모 '연탄배달 봉사' 훈훈

소비자 금융 브랜드 투스모가 최근 영세 독거노인, 장애가정 등 저소득 빈곤층 가구에 따뜻한 사랑을 전달하고자 연탄 배달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2011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다. 254명의 투스모 전 임직원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동시간대에 연탄 배달에 직접 참여해 더욱 보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투스모 관계자는 "전 임직원 사랑 나눔 봉사활동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올해에도 실천하게 됐다"며 "연탄 배달 이외에도 전 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있다면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증시 '거품 주의보'

주가 따라 증권담보대출도 사상최고치 '우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조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증시 거품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전날 나온 경제지표 호조의 영향이 이어지고 양적완화 축소 불안감이 옅어진 덕분에 상승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54.78포인트(0.34%) 오른 1만6064.77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사상 첫 1만6000선을 돌파한 이후 다시 올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91포인트(0.50%) 높은 1804.76을, 나스닥종합지수는 22.49포인트(0.57%) 상승한 3991.65를 각각 기록했다. S&P500지수는 처음으로 1800선을 넘어섰다. 이 같은 강세 속에 거품 신호로 대표되는 대규모 차익 실현,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담보대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다만 최근 뉴욕증시의 흐름이 거품 붕괴의 징후가 아닌 고점 돌파 이후 숨 고르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에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면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은 호재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했다.

홍승표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 제조업종이 호조를 보이며 고용이 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소득이 증가해 소비 여력이 커질 것"이라며 "부동산과 주식시장도 회복되면서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병열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주는 미국 연말 특수 개막 직전 소비심리 개선 가능성, 국내 대기업 임원 인사에 따른 배당 기업들의 보편팀 부각 등으로 국내 증시와 반등 흐름은 재강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e@metroseoul.co.kr

"웰빙시대, 잡곡밥 싸게 드세요" 24일 서울 성동구 롯데마트 창담역점에서 고객들이 잡곡을 고르고 있다. 롯데마트는 찬쌀, 혼미, 서리태 등 20여 종의 잡곡 총 80여 개 품목을 오는 27일까지 최대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연합뉴스

화학 성분 없는 수분크림 스킨푸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KOST)와 공동 기획한 재능기부 상품 '굿앤해니 착한 수분 크림'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은 일반인은 물론 화상 환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공향, 인공색소, 실리콘오일, 미네랄오일 등 10가지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만들었다. 특히 제품 1개가 판매될 때마다 1개를 KOST의 저소득층 화상 환자 돕기 캠페인에 기부키로 했다.

불황 먹고 크는 온라인몰

생필품 매출 크게 늘어나
가격 싸고 상품구성 다양

계속되는 불황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주부들의 허리띠는 졸라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몰은 오히려 관련 생필품의 매출이 늘면서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인데 온라인몰에서는 저용량부터 대용량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어 원하는 구성을 선별해 구매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온라인몰에서는 생필품 구입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문관 및 기획전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쇼핑 사이트 G마켓에서는 과자, 냉동식품 등의 가공식품 판매가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한 달(10월 19일~11월 18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과자 판매는 45% 증가했다. 만두, 피자, 떡볶이 등의 냉동식품은 56% 증가했다. 즉석밥 판매량은 119%나 급증했고, 통조림·캔류는 47% 늘었다. 가공식품의 경우 비교적 유통기한이 긴 데다 대용량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 온라인몰의 대표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

세탁·주방용품 등의 생필품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같은 기간 롤화장지, 곽티슈의 판매는 24% 증가했다. 비누 판매량은 24%, 칫솔·치약은 42% 증가했다.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판매량은 각각 18%, 19% 증가했다. 물티슈 판매 역시 26% 증가했다.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용량의 구매가 용이하고 오프라인 구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

G마켓 관계자는 "생필품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몰을 통해 장 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구매 및 배송이 간편한 건 물론이고 다양한 용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대에 선보이고 있어 온라인 장바구니 시장은 계속 커지는 추세다"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metroseoul.co.kr

재래식 간장 '느티울'·냉장주스 '따옴'·스낵 '두부감파'

우리말 제품 늘고 있다

최근 식품업계에 우리말을 사용한 제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과거에는 외래어 제품명이 세련돼 보인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외래어 표기가 선호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순우리말 제품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다. 기억하기 쉽고, 각 제품에서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미를 잘 표현할 수 있어서다.

대상 청정원에서 최근 출시한 '느티울'은 전통 재래식 고급 한식간장 제품이다. 제품명 느티울은 '느티나무 아래 익어가는 장맛 마을'이라는 의미로, 장맛의 본고장 순창에서 정성껏 만든 고급 간장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패키지에 새긴 제품명도 붓으로 직접 쓴 글씨처럼 디자인해 전통미와 고급스러움을 살렸다. 이 업체는 간장류에는 '햇살담은', 유지류에는 '참빛고운' 등의 순우리말 브랜드명을 사용,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면서도 정갈한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풀무원도 각각 '해찬들'과 '찬마루'라는 순우리말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빙그레 프리미엄 냉장주스 '따옴'은 자연에서 갓 따온 느낌 그대로를 담았다는 의미의 제품명이다. 합성첨가물을 넣지 않고 천연 과일의 맛을 살린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는 동원F&B의 유제품 브랜드 '소와나무'는 소의 넉넉한 마음과 나무의 정직함을 표현했다.

스낵 사업에 재도전장을 내민 ●도는 '감칠맛 있어 입맛을 다시다'라는 순우리말을 적용한 '두부감빠'를 선보인다. 해태제과의 인기 아이스크림 제품 중 하나인 '호두마루'도 순우리말 이름이다. 여기서 쓰인 '마루'는 '가장 높은 곳, 최상'을 뜻하는 말로 최상의 호두 맛을 담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주류회사인 무학도 순우리말 이름을 붙인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매실주인 '매실마을', 야생국화발효주인 '국화면옥으리', 복분자주인 '해오름' 등이 친근한 우리말 제품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장윤희기자

뉴스&뉴스

내달 1일까지 '와치 위크'

● **신세계백화점**이 다음달 1일까지 본점 본관 1층과 지하 1층에서 다양한 시계를 전시·판매하는 '와치 위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롤렉스, 브레게, 바쉐론콘스탄틴 등 세계적 수준의 시계 브랜드와 반클리프아펠, 에르메스 등 명품 뷰티 브랜드 등이 참여한다. 또 신세계백화점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 응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보온+패션 '데저트 부츠'

● **크록스**가 브리티시 감성의 스타일링 아이템 '폼슨 데저트 부츠'를 출시했다. 제품은 보온성이 뛰어나고 질은 컬러감으로 캐주얼●한 연출이 가능하며 크록스가 자체 개발한 크로슬라이트 소재를 적용해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 에스프레소·카키·토페·퓨터의 두 가지 색상으로 ●시되며 가격은 13만9900원이다.

OK캐시백 서비스 강화

● **미니스톱**은 24일부터 제휴카드 서비스 일부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T멤버십 캐쉬백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던 OK캐쉬백 적립 및 할인 서비스를 OK캐쉬백 전체 회원 대상으로 확장키로 했으며 10%였던 할인율도 15%로 확대했다. 또 다음달 27일까지 OK캐쉬백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면 미니스톱 전용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을 OK캐쉬백 포인트 1000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개선 봉사

● **카페베네**가 지난 23일 청년봉사단 5기 선수연탄은행과 함께 나눔활동을 전개했다. '혹석골 사랑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져진 나눔활동을 통해 카페베네는 저소득 다자녀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 서서학동 홀몸 노인분들에게는 단●죽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단원들은 지원 가정의 아이들과 함께 집 외부에 벽화를 그려넣으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다.

/장윤희기자

유럽 차 판매 '10월의 질주'

4년 만에 증가세로

지난 10월 유럽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영업 일수가 동일했음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가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 4국(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은 호조를 나타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펴낸 자료에 따르면 유럽차 판매는 2009년 폐차 인센티브로 인한 호조 이후 감소를 지속했으나, 4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업체별로 보면 폭스바겐은 골프·티구안의 호조로 타 모델의 부진을 상쇄했으며, 스코다는 래피드의 신차 효과로 판매가 증가했다. 르노그룹은 다치아 산데로와 로간, 르노 캡처 등 소형 신차가 판매 증가를 견인하며 호조를 보였다. 다임러그룹은 스마트가 부진했으나 메르세데스 벤츠 CLA 쿠페, E클래스의 신차 효과로 증가세를 보였다.

비유럽 업체 중에는 GM과 토요타, 닛산 등이 호조를 보였고 포드는 부진했다. 포드는 B-MAX, C-MAX가 신차 효과를 보고 있으나 독일과 프랑스에서 부진한 것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GM은 오펠과 쉐보레 등 전 브랜드가 좋은 판매를 보였다.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RAV4, 아우리스 등 주력 차종의 호조로 판매 증가를 나타냈다. 현대차는 올해 1~10월 누적 판매에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했고 기아차는 0.5%포인트 증가했다. /About:[illegible]기자

정몽구 회장,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생산 현장 점검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 23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현대하이스코 당진 제2냉연공장 등을 방문, 초고장력 강판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품질을 점검했다. /현대제철 제공

<[illegible] 중 소형SUV 중고차 시세> 단위: 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투싼ix	1,760	1,810	1,930	2,030	2,270
	싼타페 DM				3,070	3,170
기아	스포티지R		1,920	2,070	2,150	2,130
	뉴 쏘렌토R				2,810	2,870
쉐보레	캡티바			2,170	2,280	
르노삼성	뉴 QM5			2,200	2,150	2,690
쌍용	코란도C			1,820	1,960	2,160
폭스바겐	티구안	2,340	2,600	3,090	3,510	3,850
BMW	X1		3,250	3,660	3,750	4,400
	뉴X3			4,590	4,810	5,190
지프	체로키			3,710	4,710	4,720
벤츠	GLK-클래스		3,710		4,420	5,160

자료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세계 첫 사이클 리스트 감지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 진화
후측면 30m내 물체까지

도로 위의 평화주의자

엄의더의 차차차

볼보 세단 S60 2014년형

볼보의 중형 세단 S60이 새로운 디자인과 장비를 갖추고 2014년형으로 진화했다. 듀얼 헤드램프를 달았던 구형에 비해 싱글 헤드램프로 바꾼 앞모습은 심플하다. 여기에 크롬 장식과 함께 LED 주간주행등, LED 테일램프를 더해 세련미를 높였다.

실내에서는 달라진 계기반이 눈에 띈다. V40에 먼저 적용됐던 '어댑티브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운전자가 퍼포먼스, 엘리강스, 에코 등 3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는 게 특징.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시인성이 높아져 좋은 점수를 줄 만하다.

첨단 안전 시스템도 추가됐다.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됐던 세계 최초의 '사이클 리스트 감지 시스템'은 자전거를 타는 이가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 경우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시킨다. 이전까지는 앞차 외에 보행자를 감지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차도 사람도 아닌 자전거를 감지함으로써 좀 더 확실한 안전성을 갖추게 됐다.

액티브 하이빔 컨트롤은 2세대로 진화됐다.

이 장비는 단순히 맞은편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을 하향등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맞은편 차량의 위치를 계산해 필요한 만큼만 상향등의 차단 범위를 조정한다. S80과 XC60에는 상위 모델에만 적용됐지만 S60에는 전 모델 기본 장착이다.

후측면 접근 차량 경고 시스템(CTA)도 추가됐다. CTA는 뒤 범퍼 양쪽에 내장된 레이더 센서가 후측면 30m 범위 내의 물체를 감지, 뒤쪽에서 접근하는 차가 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준다.

파워트레인은 기존 모델의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 최고 출력 163마력, 최대 토크 40.8㎏·m의 2.0ℓ 디젤 엔진은 치고 나가는 박력이 뛰어난 덕에 가속이 시원스럽다. 소음이 약간 크긴 하지만 토크 감각은 충분하다.

그러나 BMW 320d가 8단 자동변속기를 얹은 반면 S60은 6단 자동변속기인 탓에 연비에서 불리하다. 실제로 S60의 복합 연비는 ℓ당 14.0㎞로 320d의 18.5㎞에 한참 못 미친다. 도심 연비는 320d가 16.4㎞이고 S60이 12.2㎞이며 고속도로 역시 320d 22.1㎞, S60 17.1㎞로 모두 320d의 '완승'이다.

결국 볼보에 주어진 과제는 S60의 훌륭한 토크 감각을 빛내줄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다. 변속기의 '다단화'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 6단보다 더 세분화된 정밀한 변속기가 필요해 보인다.

/ferrari5@metroseoul.co.kr

신형 제네시스 '돌풍'…하루 3500대 계약

신형 제네시스가 데뷔 이전부터 뜨거운 흥행몰이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19일부터 전국 현대차 지점을 통해 사전 계약에 돌입한 신형 제네시스가 계약 실시 하루 만에 3500대를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형 제네시스가 기록한 사전 계약 첫날 3500대 돌파 기록은 국내 대형차급 시장 역대 최대 실적일 뿐 아니라 2010년 그랜저(7115대) 이후 출시된 현대차 모델 중에서도 최대 실적이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수입차를 포함한 전체 대형차급의 월평균 판매량이 7500대 수준인 점, 올해 제네시스의 월평균 판매 대수가 900여 대인 점 등을 고려하면 놀라운 기록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특히 신형 제네시스가 단 하루 만에 기록한 3500대는 경쟁 수입차들의 연간 실적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급 프리미엄 시장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지난 22일까지 신형 제네시스의 누적 사전 계약 대수가 5200여 대로 집계돼 앞으로의 판매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전 계약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40대의 비중이 기존 대비 5% 늘어난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신형 제네시스의 역동적인 디자인과 독일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통해 검증된 주행 성능이 젊은 연령층에게도 큰 매력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신형 제네시스의 디자인 및 신기술을 관람하고 실제 차량을 시승할 수 있는 '더 제네시스(THE GENESIS)' 쇼룸을 서울 청담동 비욘드 뮤지엄과 부산 해운대 인포레 전시관에서 각각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러시아 음악의 참맛 보자

영국 카라비츠 지휘 맡은 '봄의 제전' 29일 공연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카라비츠의 봄의 제전' 그레이트 시리즈 IV'를 개최한다.

'봄의 제전'은 1913년 5월 29일 전설적인 무용가 니진스키가 안무를 맡고 스트라빈스키가 음악을 맡아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선보인 발레 공연이다. 야만적인 춤과 파괴적인 음악은 당시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관객들에게 충격을 줬고, 관객들은 야유를 쏟아 내는 등 대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100년이 지난 지금 '봄의 제전'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에는 이전까지 잘 사용되지 않던 변칙적인 박자가 적극적으로 도입됐고, 감미로우면서도 포악한 선율 등 이전의 어떤 음악에서도 시도하지 않은 격렬한 표현 방법이 음악계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영국 본머스 심포니의 수석 지휘자 키릴 카라비츠(사진)가 맡는다. 카라비츠는 8월에 영국 최대 음악 축제인 BBC 프롬스 무대에 섰으며 지난 시즌 로열 필하모닉과 런던 필하모닉,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에서 객원 지휘도 활발히 하고 있다.

2009년 서울시향과의 무대에서 호연을 펼친 바 있는 그는 이번 무대에서 무소륵스키, 프로코피예프, 스트라빈스키 등의 러시아 관현악 명곡을 들려주며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문의 1588-1210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일본여행

알뜰만족 실속 일본여행!

규슈 온천여행 3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제외)

오사카 ★ 고베야경 3일/4일 | 3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북해도 3일/4일 | 6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오키나와 4일 | 499,000부터
▶11월~12월 매일출발(일부날짜 제외)

www.hanatourist.com

예약문의 | 국번없이 전국 어디서나!

☎ 1577-1212

1600-6963

당사는 관광진흥법, 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시간제일자리, 대기업의 꼼수

뉴스룸에서
이국명
<경제산업부장>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의 한 노인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백 보 떨어진 곳에 가서 나무를 해오겠느냐, 아니면 힘이 들더라도 백 리 떨어진 곳에 가서 해오겠느냐."

아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백 보 떨어진 곳에서 해오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가까운 곳에서는 언제든지 나무를 해올 수 있다. 그러니 백 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는 다른 사람이 먼저 해갈지도 모르니, 그곳의 땔감부터 가져와야 근처의 땔감이 우리가 비축해놓은 것처럼 남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나라 임신사가 지은 '속맹자(續孟子)'에 나오는 '교자채신(敎子采薪)'의 가르침이다.

정부가 최근 경력단절 여성과 퇴직한 전문직 장년층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에서 93만 개의 일자리를 시간선택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일하면서 정년은 보장되고 4대 보험과 복리후생 등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교사·공기업 직원 등 공공 부문에 1만6500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삼성·롯데·신세계 등 대기업들도 26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열어 정부 정책에 적극 발맞추기로 했다.

하지만 실상은 정부의 계획과는 크게 다른 듯하다.

내년 공공기관에서 새로 선보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대부분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직무다. 기업들이 박람회를 통해 뽑는 분야도 고객 상담·판매 매장 관리·사무 지원 등 소위 '알바' 업무에 국한돼 있다.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질 나쁜 일자리 나누기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이어 시간선택제 근로자라는 또 다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싹틀 소지도 많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 문화를 조성하려는 애초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목적은 온데간데없이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짜 맞추려는 듯한 인상마저 강하게 풍긴다.

3000여 년 전 춘추시대 노인처럼 먼 곳까지 나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대신 눈앞에 놓여져 있는 손쉬운 일자리로 숫자 놀음에만 매달린 것은 아닌지 의문도 든다.

무슨 일이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근본적인 처방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친 '교자채신'의 지혜가 필요한 때다.

'잃어버린 20년, 일본' 답습할 것인가

정론직설
유병활
<편론인>

냉각된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있었으나 사정은 오히려 더욱 꼬여가고 있다. 30여 분간의 시정연설 내내 민주당은 단 한 번의 박수는커녕 시종 불편스러운 표정이었고 그나마 32명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통합진보당은 정당 해체를 항의하는 마스크를 하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도 보여줄 것은 다 보여주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참으로 안타깝다. 지금 국민들 사이에는 정치 혐오증에 더해 국회 해산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여론을 여야가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

사실 정쟁에 빠져 혹독한 경험을 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 1990년 이후 20여 년 동안 16명의 총리가 바뀔 만큼 정치적으로 혼미를 거듭했다. 이 기간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기껏해야 1~2%에 그쳤다. 1980년대 80%대였던 중산층이 30%까지 내려갔다. 물론 중국의 부상도 있지만 저성장의 그늘 아래 세계경제 2위의 자리를 내줬다. 여기에다 천재지변까지 겹쳐 위기의 나라가 돼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냈다.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극우에 매달려 인기몰이를 하면서 일본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엔화 공급으로 경기를 살려 보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집단자위권을 실행하기 위해 미·일 공조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버락 오바마 집권 2기를 맞아 갖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때아닌 에이브러햄 링컨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 150주년을 맞아 국민 위주의 정치철학을 공부 중이다. 또한 중국은 새로운 국가비전을 담은 '시진핑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이 쉴 새 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쟁으로 국력을 소모 중이다. 만성적인 저성장의 그늘 속에 실업대란을 조금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가계부채 급증으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중이다.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국민적인 원성이 들끓고 있으나 마이동풍이다. 결국 우리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데 여기에 순응하면 흥하고 역행하면 망한다는 신해혁명을 주도한 쑨원(孫文)의 말이 새삼스럽다.

'연평도의 상흔, 어찌 잊으리'

연평도 포격 도발 3주기를 하루 앞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연평도 포격 도발 3주년 특별 사진전'을 유심히 관람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는 3년 전 발생한 북한의 기습적인 연평도 포격에 대응해 전사한 장병 장병들을 추모하고, 국민의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손진영기자 son@

볼드윈의 입방정

기자수첩
조선미
<글로벌부 기자>

최근 미국 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이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속어를 내뱉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뉴욕에서 연예 전문매체 카메라 기자의 촬영에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패것(faggot·장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화근이었다. 패것은 남자 동성애자를 비하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과거 영국에서 동성애자를 화형에 처할 때 장작에 불을 지펴 사용한 데서 따왔다.

볼드윈과 언쟁을 벌인 매체는 이후 그가 욕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볼드윈이 성적소수자들을 공개적으로 무시했다며 비난은 외부였다.

논란이 커지자 볼드윈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정작 발언으로 사까맣게 타들어 간 이들의 마음에 볼드윈의 사과는 잘 전해 졌을까?

한국에서도 정치인과 연예인 등 소위 공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실언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막말 파문으로 의원직을 사퇴한 정치인도 있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연예인도 눈에 띈다. 물론 공인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말실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발언의 파급력과 언론 노출 빈도를 고려할 때 이들의 말실수에 관대할 수만은 없다. 공인의 발언은 다양한 언론매체와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차례 반복되고 재생산돼 상처 입은 사람들의 가슴에 소금을 뿌리기 때문이다. 공인들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더욱 신중하길 바란다.

소인국 릴리퍼트의 비극

인문학 산책
김인웅
<성균관대 교수>

'소인(小人)'이라는 말과 '소인배(小人輩)'라는 말은 그 격이 다르다.

하나는 자신을 낮춰 겸양의 예를 갖추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 좁고 생각 얕은 자에 대한 경멸이 담겨 있다.

'소인'이라는 말을 하인이 쓰면, 이름 없는 '쇤'과 아무개의 자리나 위치를 가리키는 '네'가 붙어 '쇤네'가 됐다. 이건 겸손의 자세를 뜻하기보다는 신분차별이 존재했던 시대에 하층만의 자존감을 박탈하는 폭력의 산물이었다.

유교 윤리를 일상의 습성으로 익히며 살았던 이들은 자신을 '소인'이라고 말하는 경우일지라도 '대인(大人)의 풍모'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대인이라는 글자 옆에는 무리를 뜻하는 '배(輩)'자가 붙지 않는다. 몽골의 제왕 '칸'도 '크다'는 뜻에서 나왔고, '누르하치'도 누리(누르)를 다스리는 큰(하) 지도자(치)라는 의미다.

18세기 초 영국의 조너선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는 일종의 판타지 소설인데, 실제로는 소인국 릴리퍼트와 거인국 브롭딩나그를 등장시켜 영국 정치를 풍자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릴리퍼트의 경우만 보자면 구두 굽을 높게 하는 자들과 낮게 하는 자들이 서로 양편으로 갈려 정파 싸움을 벌였고, 이웃 소인국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유라는 것도 달걀을 어느 쪽에서부터 깨 먹는 것이 올바른가를 놓고 견해가 갈렸기 때문이다.

이 작품 곳곳에는 이렇게 별 시시껄렁한 걸 가지고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려는 이들에 대한 작가의 비판과 풍자가 널려 있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소인배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소인국에 표류한 걸리버가 눈을 떠보니 자신의 온몸이 포박돼 있음을 알게 되는 장면은 그런 상황을 보여준다. 고귀한 이상과 남다른 안목,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도 소인배들이 이런 사람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꼼짝 못 하게 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소인국 릴리퍼트가 되고 만다.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여러 기여를 했던 걸리버는 급전 그리고 여자 문제와 관련한 악의적인 모함과 음모에 걸려 반역죄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가 결국 탈출하게 된다.

어떤 곳이든, 대인의 풍모를 갖춘 이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된다. 속 좁은 소인배들이 권력을 지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천세'라고 아뢰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 릴리퍼트를 닮은 나라 찾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아시아 반했다 K-스타일 바람

①과 ②는 22일 홍콩에서 열린 2013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에서 공연을 펼치는 K-팝 스타들 ③은 K-팝 스타의 의상 스타일을 따라한 관이 공연장 한 편에 마련된 한식 브랜드 부스를 구경하는 모습 ④는 공연장에서 응원카드를 흔들며 K-팝 스타에 열광하는 아시아 팬들 사진/CJ E&M 제공

홍콩서 열린 MAMA로 통해 본 K-팝 현주소

K-팝으로 대표되는 한류가 아시아에서 음악을 넘어 패션과 뷰티, 음식, 언어 등으로 외연을 넓힌 'K-스타일'로 진화하고 있다. K-팝 팬들이 한국 가수들을 좋아하면서 음악을 듣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서 이들이 입는 옷과 화장법을 따라 하고 한식을 즐기는 등의 한국적인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2일 아시아 각지에서 온 K-팝 팬 1만여 명이 모인 2013엠넷아시안뮤직어워드(MAMA)가 열린 홍콩에서 변화하는 한류의 현주소를 진단했다.

#노래 넘어 패션·뷰티까지 관심

최근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억소는 22일 MAMA 일시의 일환으로 열린 아티스트 웰컴 미팅에서 아시아 지역 취재진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은 엑소의 음악보다는 평소 생활 습관과 패션에 주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MAMA 공연장에서 만난 K-팝 팬 케이트(15·홍콩) 역시 "한국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드라마까지 모든 것을 좋아한다. 특별히 이유를 말하지 못하겠다. 앞으로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용돈도 열심히 모아서 한국으로 꼭 놀러가서 콘서트도 보고 싶고 관광도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한때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미국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됐듯, 지금의 한류도 아시아에서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다. 아시아인들이 K-팝이 아니라 K-스타일을 소비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MAMA 컨퍼런스에 참석한 중국 최대 동영상 포털사이트 유쿠투도우의 부총재 양 웨이동은 "예전에는 K-팝 팬들이 스타와 노래에 관심을 가지는 데 그쳤다면 지금은 스타의 뒷이야기,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이 증가한 것"이라고 아시아에서의 한류의 변화를 전했다.

#한류 아직 어려 저변확대 노력해야

K-팝에 대한 관심이 라이프스타일 전반으로 확대되는 현상은 경제산업적인 낙수 효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 세계 팝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 같은 효과를 이용해 일찍감치 팬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파고드는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MAMA를 주최한 CJ E&M의 한 관계자는 "U2, 마돈나 등이 소속된 미국의 대형 공연 기획사 라이브네이션은 스타와 공연 계약만을 맺지 않는다. 패션, 뷰티, 자동차 등 스타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활용하는 계약을 맺어 '360도 마케팅'을 펼친다"고 설명했다.

국내 대형 가요기획사도 이런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말부터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단순히 MD 상품을 팔던 기존과 달리 패션, 화장품, 여행 등 타 산업에 진출해 적극적인 연계를 꾀하는 것이다.

MAMA를 주최한 CJ E&M 역시 이번 공연에서 행사장에 한류스타가 광고모델로 출연하는 화장품 브랜드와 CJ그룹의 한식 브랜드 비비고 등 다른 산업과 연계한 부스를 설치해 현지 팬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식품, 영화, 공연 등의 사업을 전개하는 CJ그룹은 최근 한류 콘텐츠를 산업과 접목한 한류 비즈니스 모델을 속속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전문가들은 한류가 식지 않고 K-스타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할 과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콩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디어아시아의 사장 개리 챈은 "K-팝 팬들은 기존 홍콩 젊은이들이 문화를 소비했던 방식과 다른 문화를 즐기고 있다. 그런 면에서 K-팝의 잠재력이 대단히 크다"면서도 "그러나 팬층이 어리기 때문에 팬층 확장을 위한 전략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홍콩=박찬현기자 tak0427@metroseoul.co.kr
/디자인 박은지

star bag

일곱살 연하 여친과 결혼

힙합 뮤지션 **MC 스나이퍼**가 '품절남'이 됐다.

그는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논현동 웨딩의 전당 뉴힐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일곱 살 연하의 일반인 여자친구와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축가는 MC스나이퍼와 각별한 사이인 라이머가 대표로 있는 브랜뉴뮤직의 범키가 불렀다.

'히든싱어' 최다득표 우승

가수 **아이유**가 JTBC '히든싱어2'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우승했다.

23일 방송된 아이유 편에서는 영국에서 온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출연한 은혜와 사운, 중학생 전이원 등 다양한 일반인이 아이유를 모창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유는 'Boo'를 부른 1라운드에서 4표, '좋은날'을 부른 2라운드에서 9표, '너랑 나'를 부른 3라운드에서 13표를 득표했다. 이어 마지막 라운드 '나만 몰랐던 이야기'에서 역대 최다인 83표를 받아 최종 우승했다.

도쿄서 팬 마련 전시회

배우 **박시후**의 팬들이 마련한 전시회가 23~24일 일본 도쿄 다이칸야마의 힐사이드테라스에서 열렸다.

'더 텐 투 위즈 데어'란 제목으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박시후가 작품을 안내하는 영상 코너를 비롯해 출연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과 의상, 액세서리, 일상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으로 구성됐다. 박시후는 영상을 통해 "처음 갖는 전시회를 통해 또 다른 박시후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시트콤 '감자별' 고정출연

일본 여배우 **후지이 미나**가 tvN 일일 시트콤 '감자별 2013QR3'에 고정 출연한다.

제작진은 24일 "후지이 미나가 27일 방영될 26회에 첫 등장할 계획"이라며 "김병욱 감독의 시트콤에 출연하는 외국인 배우로는 줄리엔 강에 이어 두 번째 출연"이라고 밝혔다. 후지이 미나는 극중 여자친구 수영(서예지)을 따라 한국에 왔지만 이별 통보를 받은 줄리엔 강과 새로운 러브라인을 형성한다.

크레용팝 "X-마스 콘셉트일 뿐"

의상표절 논란 일축

걸그룹 크레용팝의 크리스마스 의상 논란과 관련해 소속사 크롬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크롬엔터테인먼트 측은 24일 "수많이 비슷한 디자인의 크리스마스트리 의상들 중 왜 모모이로 클로버Z만 지적하는가? 크리스마스트리가 주는 상징적 이미지가 있어 모든 의상들은 그 상징적 이미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러 층으로 나눠진 녹색 잎, 잎 가장자리에 걸쳐진 눈, 여기에 각종 장신구와 트리 꼭대기의 별 등은 크리스마스트리를 상징하는 이미지의 구성요소"라며 "크레용팝이 화보 촬영 시 착용했던 의상은 이러한 상징적 이미지를 그대로 형상화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모모이로 클로버Z 멤버 아리아스 모모카가 입은 의상(왼쪽)과 올해 11월 크레용팝 리더 금미가 선보인 의상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크레용팝 트위터

또 의도적인 노이즈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 노이즈마케팅은 오히려 독"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성운기자

12월 콘서트 '화려한 성찬'

조용필·싸이 등 쟁쟁한 가수들 무대 줄이어

콘서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면 국내 유명 가수부터 인디밴드까지 수많은 공연이 펼쳐진다. 그야말로 콘서트 대목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수준이다.

◆조용필·싸이 톱스타 공연

올 연말 가장 눈길을 끄는 공연은 10년 만에 발표한 정규 19집 앨범으로 명불허전의 파워를 보여준 '가왕' 조용필의 콘서트다.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데뷔 이후 콘서트에 남다른 애착을 보여온 '월드 스타' 싸이의 콘서트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싸이는 이번 콘서트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욕제를 가도 15곡씩 하던 제가 달랑 2곡('강남스타일', '젠틀맨')으로 1년을 살았지 말입니다. 올 한해 무지하게 애쓴 우리 격에 맞지 않는 짓 싹 허무만 합시다"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라이브의 황제' 이승환은 '이승환옹 특별회고전'을, 19금(禁) 콘서트라는 독보적 브랜드를 구축한 박진영 역시 공연을 연다.

◆ SM타운 위크, 아이돌 총출동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가수들의 연말 콘서트를 대규모 릴레이 형식으로 여는 'SM타운 위크'를 연다. 다음달 21일 샤이니의 공연을 시작으로 소녀시대(22일), 에프엑스와 엑소(24~25일), 동방신기(26~27일), 슈퍼주니어(28~29일) 등 여섯 팀이 차례로 자신만의 공연을 선보인다. 또 새로운 콘셉트의 공연을 예고한 2AM의 콘서트 '녹턴(야상곡)'은 다음달 7, 8일 방이동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다. 박재범은 다음달 28일 부천실내체육관에서 '2013 박재범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한다.

/황성운기자 sgw@metroseoul.co.kr

해외 항공사 '겨울특가' 손짓

영국·에미레이트항공 할인 에어캐나다 '자유여행' 유혹

12월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겨울 여행객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영국항공은 오는 29일까지 유럽 행 특가 항공권 3종의 할인 병사를 벌인다. 특가 항공권은 이코노미(114만2200원)·프리미엄 이코노미(156만2200원)·비즈니스 클래스(277만9400원) 등 공항 이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3종이며 내년 3월 31일까지의 총 6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항공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25%의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다음달 31일과 내년 1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월~목요일 사이에 인천을 출발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에 한해 특가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겨울 시즌에 여행하기 좋은 두바이 노선은 세금 등을 모두 포함해 128만91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에어캐나다는 지난 9월 출시된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캐나다 홀리데이를 통해 '캐나다 윈터 원더랜드'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는 렌터카 자유여행 상품과 스키 자유여행 상품 2가지 테마로 구성돼 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서울로얄호텔 '뷔페가 예술'이네

카페&다이닝 베르자뎅 연말 특선메뉴 선봬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로얄호텔이 카페·다이닝 베르자뎅에서 품격 높은 서비스와 엄선된 요리로 구성된 세미뷔페 앙뜨레 특선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호텔은 연말을 맞아 25일부터 볼로냐식 라자냐, 피자, 가리비 카르파치오 등 15가지로 구성된 세미뷔페와 함께 이탈리안 음식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파스타 요리와 매콤한 소스로 맛을 낸 디아블로 치킨, 신선한 생선을 엄선해 그릴에 구운 생선요리, 최상의 한우를 이용한 등심과 안심스테이크 등의 메인요리를 제공한다.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3만5000~5만5000원이며 영업 시간은 오후 5시30분~7시30분, 오후 8~10시까지 2부로 나눠진다.

아울러 호텔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아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X마스 디너 스페셜 메뉴'도 준비 중이다.

이탈리안 스타일의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A와 세계 3대 진미와 최상의 한우 안심스테이크로 구성된 스페셜S 두 가지 메뉴로 구성되며 가격은 세금을 포함해 스페셜A가 7만7000원, 스페셜S가 9만9000원이다. 또 스페셜S 메뉴를 주문하면 칵테일 1잔이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02)2129-5805~7

/황재용기자

스무디킹 "산타쿠폰 받으세요"

31일까지 겨울메뉴 구매시

글로벌 넘버원 오리지널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22일부터 겨울 시즌 메뉴 구매 고객에게 스무디 사이즈업 및 커피·건강기능식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타쿠폰'을 증정한다.

겨울 시즌 메뉴인 '카카오 믹스트림 스무디', '크랜베리 믹스트림 스무디', '핫 후르츠티(4종)'를 구매하면 신제품의 사이즈업 쿠폰과 아메리카노와 건강기능식품 3종 등의 할인쿠폰이 든 산타쿠폰을 31일까지 제공한다. 쿠폰 사용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스무디킹 홈페이지(www.smoothieking.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민기자

제주신라호텔 '에어텔 패키지' 실속있네

제주신라호텔이 12월 첫 겨울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항공·숙박·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 가능한 '에어텔 패키지(2박 상품)'를 선보인다.

다음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투숙 가능한 이번 에어텔 패키지에는 본관 스탠다드 객실 2박과 2인 왕복 항공권, 2인 조식이 제공된다. 또 패키지는 호텔 예약과 동시에 항공권 예약이 이뤄지며 제주공항과 호텔을 편안하게 오갈 수 있는 왕복 셔틀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따뜻한 야외 노천 스파와 프라이빗 스위밍을 횟수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야외 온수풀·자쿠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더불어 어린이 투숙객에게 신라 테디베어 등을 특별 선물로 제공한다.

/황재용기자

던킨도너츠 '더 고소한 라떼'

던킨도너츠(www.dunkindonuts.co.kr)는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달콤함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더 고소한 라떼 3종'을 한정 출시한다.

제품에 함유된 프랄린은 아몬드와 헤이즐넛을 끓는 설탕물에 하뜨린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견과류를 곱게 갈아 다크나 밀크 초콜릿으로 코팅한 것으로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 전국 직영점에서 한정 판매하며 가격은 4200원.

드라마 속 '훈남 슈트' 따라입기

베스트 갖춘 스리피스나 더블브레스트 최근 인기

요즘 드라마 속에는 훈훈한 모습으로 여심을 녹이고 있는 남자들이 대거 등장하며 그들의 연기뿐만 아니라 패션 또한 화제를 몰고 있다.

패션에 관심을 갖는 직장남성들이 늘어남에 따라 재킷·베스트와 팬츠가 갖춰진 스리피스 슈트를 선호하는 추세다. 싱글 슈트로는 스타일링에 한계를 느낀 남성들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점에서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블랙이나 그레이 톤으로 맞춰서 세련된 클래식 비즈니스룩을 연출하거나 컬러나 디자인에 약간 변형을 준 콤비네이션으로 좀 더 패셔너블한 면모를 드러낼 수도 있다. 너무 클래식한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재킷 대신 카디건류를 매치하면 편한 캐주얼한 느낌을 살릴 수 있다.

스리피스 슈트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슈트는 단연 더블브레스트 슈트다. 기본적으로 무채색으로 톤다운시켜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매치하면 슈트의 정석을 보여줄 수 있다. /[illegible]기자

세컨드 가전 '오! 베이비'

'펭귄부부' 늘면서 아기전용 세탁기·살균기·쿠커 인기

한 명만 낳아 귀하게 키우는 저출산 풍조로 생활 방식을 어린 자녀에게 맞추는 '펭귄부부'가 새롭게 등장했다. 펭귄부부는 가전 제품 하나도 '아이 맞춤형'으로 구입한다. 아이 옷을 깨끗하게 삶을 수 있는 세탁기부터 용품 소독기까지 펭귄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은 생활 가전을 살펴봤다.

어른 옷과 아이 옷을 구분해 빨기 위해서는 세컨드 세탁기는 필수다. 삼성전자 '세탁기 아가사랑 플러스'는 삶음 코스를 3가지로 세분화시켰다. 아기의 기저귀나 속싸개 등에는 '푹푹삶음', 타월·면 내의 세탁 시에는 '알약삶음', 오가닉 코튼 등은 '아가옷' 코스를 선택하면 된다. 헹굼 추가가 6회까지 가능해 세제 잔여물 걱정도 없다.

수시로 소독해야 하는 아기용품은 전용 스팀소독기를 이용하면 간편하다. '필립스 3-in-1 전기 스팀 소독기'는 증기의 강한 열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한다. 젖병·포크 등 이유식기 소독은 물론 대용량(330㎖) 젖병 6개를 동시에 살균할 수 있다. 특히 살균한 내용물을 최대 24시간 동안 멸균 상태로 유지해줘 위생적인 보관이 가능하다.

불 없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멀티쿠커는 이유식을 만들 때 유용하다. 한국지코의 '드롱기&미'는 별도 물탱크 없이 스테인리스 용기 안에서 바로 스팀 조리가 가능하고 믹싱 기능에 끓이기까지 갖춰 손쉽게 이유식을 만들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 자녀 가정이 늘어나면서 가전제품 하나를 구매할 때도 아이에게 필요한 기능이 담겨져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배변 돕는 광동 '다비앙' 출시

광동제약이 배변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동 다비앙'을 출시했다.

제품은 식이섬유 6000㎎을 함유해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며 장 건강을 돕는 프락토올리고당과 갈락토올리고당, 비타민 C 등을 함유하고 있다.

또 제품은 20~30대 여성의 입맛을 고려해 사과와 푸룬의 맛을 구현했으며 소포장 형태로 판매돼 휴대가 간편하다. /황재용기자

우유 마시면 치아 튼튼

이래서 'WHO 충치예방 식품'

충치 원인 되는 산 중화하고 카세인이 충치균 부착막고 치아 형성 돕는 칼슘도 풍부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초콜릿이나 사탕, 달콤한 케이크 등의 유혹이 이어진다. 특히 아이들은 단 음식에 대한 절제력이 어른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의 치아 건강이 걱정이다. 충치도 예방하면서 치아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식품은 없을까?

2003년 보고된 세계보건기구(WHO) 자료에 따르면 충치 예방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우유 자일리톨 식물 섬유가 올랐고 충치 예방 가능성이 높은 식품으로 경성치즈(체다치즈) 무설탕 껌도 포함됐다.

우유와 유제품에는 충치의 원인이 되는 산을 중화하는 기능이 있어 산에 의한 치아 부식을 막는다. 또 우유를 마시면 침 분비가 자극되는데, 침 속에는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어 치아 표면이 단단해지는 것도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우유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카세인은 충치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치아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성분이 입안을 빠르게 중성화시키고 치아 표면의 법랑질층에 우유 속에 풍부한 미네랄을 흡착시켜 입안의 충치균으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충치균이 치아의 표면에서 증가하는 것을 억제해준다. 카세인 이외에도 유청단백질 락토페린·라이소자임 등이 여러 형태로 충치 유발 박테리아와 상호작용을 하며 치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일조한다.

또 우유에 포함된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하는데 튼튼한 치아 형성을 위해서는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또 우유와 유제품은 충치나 뼈의 부식을 방지하거나 치아의 미네랄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정영일기자

'보습의 멀티플레이어' 모여!

영양·주름개선·미백 겸한 올인원 크림들 속속 출시

간각스러운 반짝로 겨울이 다가오면서 보습 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피부가 수분감을 잃고 건조해지는데 이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각질은 물론 여드름이나 잔주름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므로 겨울철에도 촉촉한 피부 미인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피부 보습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뷰티업계에서는 다기능을 제공하는 똑똑한 보습 제품들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본연의 기능인 수분 공급은 물론이고 영양 공급과 주름 개선, 피부 미백 등 부가적인 기능을 더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주는 제품들이 속속히 출시되고 있다.

◆스킨로션·에센스, 크림이 한번에! 단계 줄인 올인원 크림

세안 후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으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단계가 번거로운 귀차니스트라면 올인원 수분크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리따움'은 지난 9월 바쁜 일상 속 스킨케어 단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올인원 스킨케어 아리따움 동안 올인원 크림 3종을 출시했다. 비욘드 에서 출시한 '리보커스 멀티 크림'도 에센스·로션·크림 세 기능을 한번에 제공하는 올인원 크림이다. 바쁜 아침과 귀찮은 저녁에 촉촉하고 빛나는 피부로 완성해주는 초간편 스킨케어 제품이다. 유세린의 '아쿠아포린 액티브 모이스춰라이징 크림'은 에센스와 로션·크림·메이크업 베이스 기능과 피부 보정, 자외선 차단까지 한 번에 해결해준다.

◆보습+영양+피부 미백+주름 개선··· 기능도 '올인원'

'아모레'에서 선보인 '아모레 인텐시브 케어 MLE 에센스 미스트' 제품은 고보습 에센스 미스트로 특허 보습 포뮬러 MLE가 피부 보습 보호막을 형성해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고 장시간 보습을 유지시켜준다. 크림 전문 브랜드 '나인틴식스티뉴욕(1960NY)'에서 출시한 '수퍼 리치 크림'은 기본적인 피부 보습과 함께 영양 공급 그리고 주름 개선 기능을 갖추고 있어 피부 고민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ymcho@metroseoul.co.kr

JAL '필리핀 돕기' 마일 기부

일본항공(JAL)은 지난 8일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어린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JAL 마일리지 뱅크(JMB) 회원을 대상으로 채리티 마일 기부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채리티 마일 기부는 1구좌 3000마일(3000엔상당)부터 3000마일 단위로 접수할 수 있으며 다음달 15일까지 JAL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참여할 수 있다.

JAL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활동의 일환으로 채리티 마일을 활용한 연간 활동을 기획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홈페이지 및 JMB 회원을 대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알리고 마일 기부를 장려해 환경 보전 및 자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02-3788-5738

/송병일기자

올해 '한국 SCM대상' 애경산업 2관왕 차지

애경산업(대표 고광현)이 22일 한국SCM학회가 주관한 '제2회 한국 SCM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SCM 제조부문 대상 등 2관왕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고광현(사진) 대표는 "SCM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사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사적 관점의 중장기 개선 과제를 도출, 혁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수요에 기반한 일원화된 상품 공급 체계를 다듬어 대한민국 SCM 혁신 선도기업으로 등장시켰다"고 말했다.

日세이브왕 벌써 오승환 경계?

이와세 "그 선수 잘 몰라"

일본프로야구의 독보적인 세이브왕 이와세 히토키(39·주니치 드래곤스)가 한국의 '끝판왕' 오승환(31·한신 타이거즈·사진)과 묘한 신경전을 펼쳤다.

벌써부터 일본 언론들이 '한신의 수호신'이라며 오승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최고 마무리로 꼽히는 이와세가 오승환에 대해 짐짓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 주목된다. 내년 시즌 센트럴리그 최고 마무리를 다툴 한·일 구원왕의 묘한 신경전이다.

일본 스포츠 전문지 '스포츠닛폰'은 24일 '이와세 한국 세이브왕에 무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이와세가 '(상대팀) 투수는 보지 않기 때문에 (오승환에 대한) 인상은 없다. (아시아 기록인) 47세이브 기록을 갖고 있는 것도 처음 들었다'고 무관심을 가장했다"고 전했다.

이와세는 명실공히 일본 최고 클로저다. 1999년 이후 줄곧 주니치에서 뛴 그는 통산 382세이브(53승 41패)로 일본 최다 기록 보유자다. 일본 최초로 15년 연속 50경기 이상 등판했고, 올해까지 9년 연속 30세이브 이상을 거두는 꾸준함을 보였다.

한국프로야구 최다인 277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이 구원왕 이와세를 뛰어넘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희철기자

아마농구 내일 '점프볼'

아마추어 농구 최강자를 가리는 농구대잔치가 열흘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치러질 이번 2013 농구대잔치는 남자1부(13팀), 남자 2부(5팀), 실업·대학팀이 참가하는 여자부(6팀) 등 총 24팀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하희철기자

프로축구 전적 (24일)

서울	3	2	부산
제주	0	1	경남

[illegible]

프로농구 전적 (24일)

SK	16	17	19	23	75
동부	20	21	15	24	80
삼성	24	17	18	19	78
인삼공사	12	18	18	22	68
전자랜드	16	21	17	13	67
KT	14	17	14	18	63
국민은행	15	22	10	23	70
우리은행	16	23	22	14	75

박인비 LPGA 올해의 선수상 영예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23일 미국 네이플스의 리츠칼튼코랩에서 열린 LPGA 연례시상식에서 한국인 최초로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AFF 연합뉴스

삼성화재 '1위 스파이크'

선수들 고른 활약…현대캐피탈 꺾고 1라운드 선두 마감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남자프로배구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에서 공격에 성공한 삼성화재 선수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가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를 완파하고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감했다.

삼성화재는 24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NH농협 2013~2014 프로배구 V리그 1라운드 현대캐피탈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0(27-25 25-22 25-21)으로 완승했다. 이날 승리로 4연승을 달린 삼성화재는 시즌 전적 5승1패(승점 14)를 기록, 리그 단독 선두로 1라운드를 마쳤다. 반면 2연승을 마감한 현대캐피탈은 4승2패(승점 12)가 되면서 2위로 내려앉았다.

이날 경기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의 대결로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삼성화재는 레오 마르티네스와 박철우가 좌우 쌍포로 나섰고 고준용이 공격과 리시브를 담당했다. 이선규와 고희진이 센터라인을 구축했고, 유광우가 야전사령관으로 나섰다. 리베로로 김강녕이 먼저 코트에 들어섰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리버맨 아가메즈와 송준호가 공격에 나섰고, 임동규는 공격과 리시브를 모두 책임졌다. 윤봉우와 최민호가 가운데를 지켰고 최태웅이 볼 배급을 담당했고, 리베로 여오현이 수비에 앞장섰다.

양 팀의 최다 점수 차는 3점으로 1세트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그러나 특정 선수에 집중하기보다 모든 선수를 활용한 삼성화재가 기분 좋은 완승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반면 현대캐피탈은 최다 득점을 올린 아가메즈(26점·공격 성공률 55.81%)의 활약에도 시즌 첫 연패를 기록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하희철기자 yow@metroseoul.co.kr

프로배구 전적 (24일)

한국전력	2	3	우리카드
삼성화재	3	0	현대캐피탈
현대건설	1	3	GS칼텍스
인삼공사	3	1	기업은행

'한국판 쿨러닝' 소치서 일낸다

봅슬레이 대표팀 아메리카컵 남자 2인승 금메달

'한국판 쿨러닝' 썰매 대표팀이 아메리카컵에서 연달아 낭보를 전했다.

파일럿 원윤종(28)과 브레이크맨 서영우(23)로 구성된 봅슬레이 남자 2인승 대표팀은 24일 미국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2013~2014 아메리카컵 5차 대회에서 두 차례 레이스 합계 1분37초41 만에 결승선을 통과, 프랑스(1분37초50)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원윤종은 지난 시즌 막판이던 올해 3월 아메리카컵에서 한국 봅슬레이 사상 첫 금메달을 두 차례나 국에 건 바 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올 시즌에도 역대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 대륙별 대회에서는 정상급 실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하희철기자

the(더) 순정예능

평균 한국거주 7년, 외국인 4인방의 순정예능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